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유형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관점(social capital perspective) 적용

홍 현 미 라(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지역사회의 빈부격차, 가족해체,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영세민의 집단거주, 저소득 계층의 밀집화와 집단화로 인한 우범지역화, 비행청소년의 문제 등은 날로 그 범위와 정도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그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최은영, 2004; 유성환, 1994; 김재엽·정소연, 1997). 무엇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사회의 여건이 열악할수록 한층 배가 된다는 사실이다(Nemon, 2002). 이에 사회복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실천이 이뤄지고 있는데(Mattessic and Monsey, 1997; Gittell and Vidal, 1998), 공간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늘 제기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Knotts, 2000). 하나는 자원의 부족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사회복지 조직 간 협력실천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자원공급의 문제와 사회복지 조직간 협력실천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시도들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개발경험에 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s within the community)을 활용한 자원개발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사회복지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또한 자원공급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물적·인적의 동원’이라는 차원에서만 논의 된 그 간의 자원개발 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방법론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의 경험을 통해 자원개발현상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기술하고자 하며, 그러한 자원개발 경험의 유형을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독특함은 자원개발 경험에 관한 이해를 위한 도구로 사회자본 관점을 적용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써(Coleman, 1988; Putnam, 1995), 사회관계망을 토대로 신뢰와 상호호혜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일컫는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자본 관점은 단순히 자원개발의 의미를 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사회관계망을 자원화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미 형성된 사회관계망을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구조화 하는 것

을 의미한다(Knotts, 2000; Marwell, 2000; Mattessich and Monsey, 1997; Gittel and Vidal, 1998; Potapchuk 외, 1997).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은 고유하게 상호간의 신뢰와 상호호혜적인 규범을 기초로 구축되기 때문에 협력실천이 가능해지는 (Coleman, 1988; Putnam, 1995; Sridharan & Gillespie, 2004; Mizrahi, 1999; Bryson & Mowbray, 2005) 장점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 자원개발은 물론 사회복지 조직간 협력실천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경험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개발에 관한 기초지식을 형성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하여 자원개발을 실천한 경험이 3년 이상 된 사회복지관의 중간관리자와 최고관리자 14명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다. 한 가지 방법은 사회복지계의 평판을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하였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방송매체나 신문, 또는 특강 등에서 사회자본 구축의 증거들을 보인다고 판단된 실천사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평균 38.6세, 사회복지사 경력은 평균 12년 5월, 현 복지기관에서의 경력은 평균 7년 3월 이었다. 남자 참여자는 10명, 여자 참여자는 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심층면접과 참여자들의 실천과정 기록지 및 사업 평가서, 또는 자원개발을 위한 기획서 등의 실천관련 한 문서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녹음한 뒤 그 내용을 8시간 이내에 녹취하였다.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과 Corbin(2004)의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을 하였고, 축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자본 개념정의는 사회자본은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써(Coleman, 1988; Putnam, 1995), 사회관계망을 토대로 신뢰와 상호호혜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일컫는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자본이 기존의 물적·인적 자본과 다른 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 사회자본과 물적·인적자본에 대한 비교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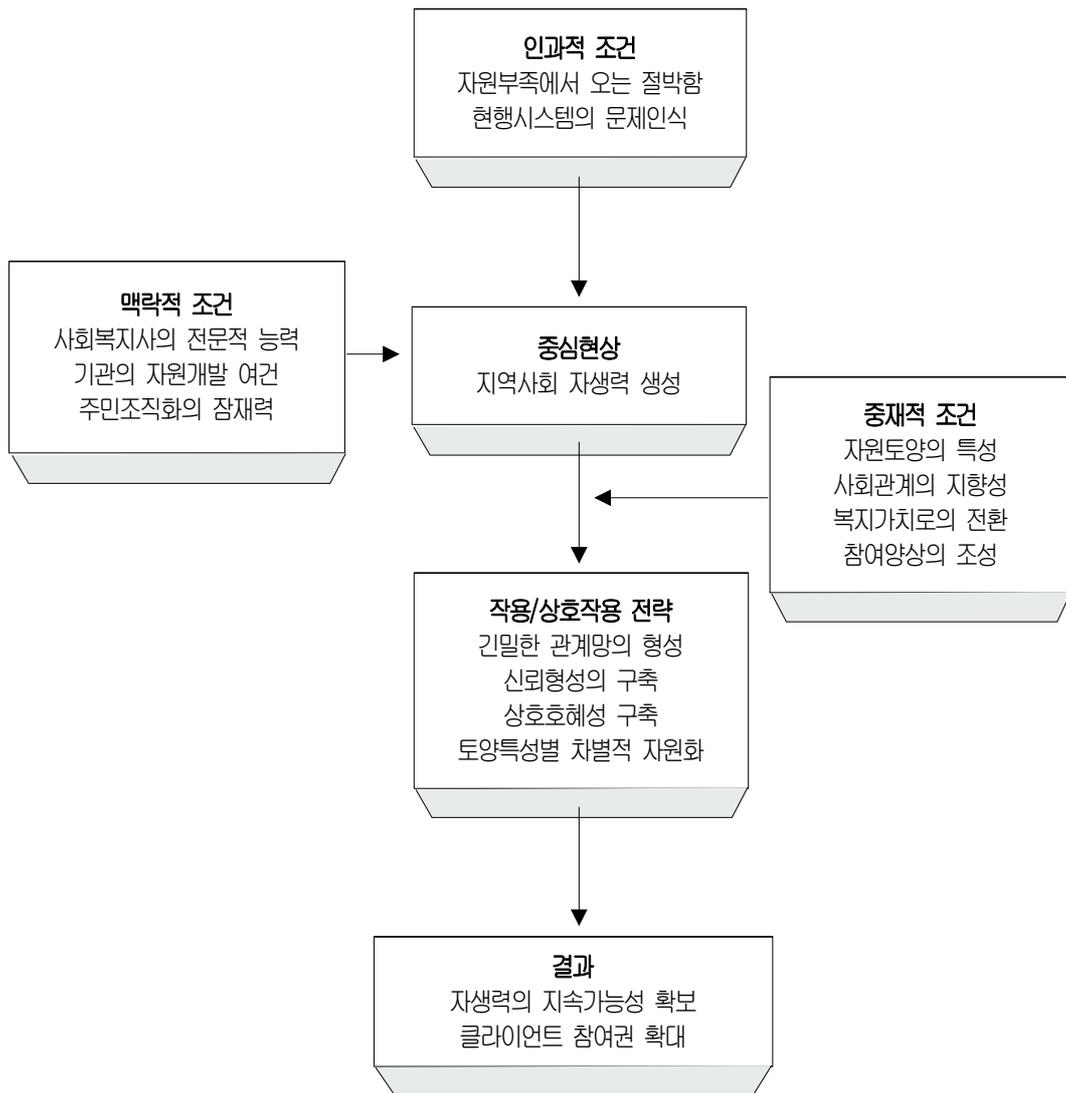
	사회자본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본 출처	사회관계 속에 내재	관찰가능 한 물질적 자본	개인의 습득된 기술이나 지식
실체성	비실체적 존재	실체적 존재	반실체적 존재
형태	사회 관계망	토지, 설비, 공장 등	학력, 기술, 자격 등
특성	공공재적 성격	사적 소유의 성격	사적 소유의 성격
생산성	생산적임	생산적임	생산적임

그리고 사회자본 유형에 관한 논의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2> 지역사회 실천에서의 사회자본의 유형

연구자	사회자본의 유형	
Putnam(1993)	유대적 사회자본 (Bonding Social Capital)	가교적 사회자본 (Bridging Social Capital)
Temkin과 Rohe (1998)	사회문화적 환경 (Sociocultural Milieu),	제도적 토대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Briggs(1998), Keyes 등(1996)	지렛대로써의 사회자본 (Leveraged Social Capital)	사회지원으로써의 사회자본 (Social Supported Social Capital)
Marwell(2000)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형	게젤샤프트(Gegellschaft) 형

본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78개의 개념, 6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나왔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결과, 사회자본 관점에 입각한 지역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자원개발경험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자원부족에서 오는 절박함’, ‘현행시스템의 문제인식’이 나왔으며, 중심현상으로는 ‘지역사회 자생력 생성’, 이러한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 ‘기관의 자원개발 여건’, ‘주민조직화의 잠재력’ 등으로 나왔다. 중심현상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중재하는 조건으로는 ‘자원토양의 특성’, ‘사회관계의 지향성’, ‘복지가치로의 전환’, ‘참여양상의 조성’,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긴밀한 관계망 형성’, ‘신뢰형성의 구축’, ‘상호호혜성 구축’, ‘토양특성별 차별적 자원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 결과로 도출된 범주는 ‘자생력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클라이언트 참여권 확대’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내용을 아래 <그림-1>에 제시하였다.



자원개발경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상부상조의 재생’형과 ‘시민 역량의 자원화’형, 그리고 ‘주민조직을 통한 자원동원’형, 마지막으로 ‘외부자원망의 활용’형으로 분석되었다.

‘상부상조의 재생’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소박하게 돕는 문화가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관계망이 포진되었음을 알고, 부족하지만 지역 내 관계망에 집중하고, 이런 가운데 복지관이 오히려 자원의 위치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직능단체 관계망에 참여가 가능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가운데 협력하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특성에 맞춰 참여자들은 토착지도력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주민의 역할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시민 역량의 자원화’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를 비옥하지만 개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인 즉, 복지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 많음을 발견하고 지역사회가

자원의 보고라고 인식하며, 수급자들이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고, 그 수급자를 공유함으로써 자원개발을 꾀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이슈중심의 접근방법이 힘든 경험을 하고, 직능단체와의 협력이 용이함을 경험함으로써, 민관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맞춰, 참여자들은 역량 있는 개별자원에 집중하고, 토착지도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였다. 끊임없이 수혜자의 존재를 주시킴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역량 있는 자원의 참여’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민조직을 통한 자원동원’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를 다중적 문제를 지닌 수혜자가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적 고립과 단절, 절박한 생계로 주민참여가 어려움, 척박한 지역사회 관계망, 오로지 인적자원 뿐이라고 인식함, 계층 간 통합이 어려움, 복지관이 오히려 자원임 등의 특성을 갖는 ‘척박하지만 사람은 있음’의 지역사회로 인식되었다. 이런 특성에 맞춰 수급자 역량강화와 자원의 유입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외부자원에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책무성 부여함, 어려운 이웃을 발견함으로써 복지관심을 유도함, 임대아파트 지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함, 미력하지만 수급자를 자원화 함, 수급자를 역량강화 함, 토착지도력의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함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자원망의 활용’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는 협력문화가 부재하고, 지역적 뿌리가 약한 관계망들이 있으며, 지역사회 이권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복지관의 인지도가 낮음을 인식하고, 도시가 공동화 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특성에 맞춰 참여자들은 참여자 이익중심의 외부자원을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표 V-1〉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유형

	「내부 집중」형	「외부 연계」형
	내장된 복지기능에 주목	기능적 지역사회에 주목
지역사회의 자원적 여건이 부족함	상부상조의 재생형 (저소득층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통한 자원동원형 (임대아파트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자원적 여건이 풍족함	시민 역량의 자원화형 (중산층 지역사회)	외부자원망의 활용형 (상권 지역사회)

이상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사회자본 관점에 입각한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자원의 공급이 원활하고 지속적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간의 협력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지역성 발견과 그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철학적 신념으로 해석되며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또는 실천의 수퍼비전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이 거듭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하여 자원개발을 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도한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구분이 거주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한정된 점을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동원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본래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자원개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중적 목적을 가지고 자원개발을 하려고 할 때 사회자본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사회자본 관점의 선택은 자원개발의 지속가능한 구조화 방법을 안내해주면 자원개발의 기초 영역을 확대해 준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자원 의존이론이나 네트워크 이론, 그리고 자원동원 관점 등의 한계에 대한 학문적 고찰과 새롭게 사회자본 관점의 유용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자본 관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회복지 자원개발의 실천이 자원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사회적 신뢰형성과 상호호혜적인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사회복지사 개인은 물론, 사회복지 기관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함께 어울어졌을 때 사회복지 자원공급의 원활해질 것이다.